

한은 “가계대출 낮은 증가세 유지…주택시장 불확실성 여전”

‘가계대출 동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평가’ 보고서 높은 주택값·PF 부실 우려가 주택 매수심리 회복 저지

한국은행(한은)은 14일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했지만, 당분간은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혼재하는 등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된 ‘가계대출 동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6조6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됐다. 다만, 금융권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0.7% 증가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감소세를 지속했던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과거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주담대의 증가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대출 규제 완화로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확대됐고, 주담대가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한도, 금리 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주담대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대출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정책금융 상품을 통한 가계대출은 저금리,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액비율(DSR) 규제 적용 배제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비교적 높은 금리수준 및 DSR 규제, 지방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인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어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수준, 부동산PF 부실 우려 등이 주택 매수심리 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봤다.

반면, 향후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상품 규모가 지난해 대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 기관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가계대출 상승요인이었던 특례보증자리론 공급을 중단하고, 서민·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공급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금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로 출시하면서 공급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신용대출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면 확대폭이 클 가능성은 적다고 한은은 예측했다.

한은은 비은행 가계대출 역시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누적된 미분양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 영향도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의 영향은 이어지겠지만, 지난달부터 대출한도 설정시 금리변동의 위험까지 고려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된 만큼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가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추세를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여건들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사탕 대신 백설기로”...농협 전남본부, 백설기·떡 나눔

14일 백설기데이 행사 성료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14일 백설기데이를 맞아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백설기데이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정재현 영업본부장, 이병완 전남검사국장, 박호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 등이 참석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백설기 데이에서 전남본부는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백설기 떡과 우유를 무료로 제공했다.

전남농협은 오는 17일까지 하나로마트 남악점에 한해 전남 쌀 대표브랜드인 풍광수도 구매 고객에게 쌀 1kg을 추가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박종택 본부장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백설기데이가 의미있는 기념일로 자리잡아 쌀 소비촉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3회를 맞이한 백설기데이(3월 14일)는 사랑을 선물하는 상업적 마케팅을 대신해,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고취하기 위해 2012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제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대재해 예방 최선”...LH ‘안전문화의 날’ 개최



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수미)는 14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4년 안전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안전문화의 날은 안전보건 경영 의지 전파,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확산과 임직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안전보건경영 선언, 건설현장 책임자 안전서약, 책임안전시공 서약을 한 뒤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점검과 현장 근로자 안전물품 키트

를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LH는 ESG경영 중 안전관리 강화를 사회분야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미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시설물·건설현장 내 중대재해 예방과 임직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건설업 일자리 ‘빙하기’...일용직 40년 만에 90만명 미달

지난달 일용직 취업자 87만7000명...부동산시장 침체 영향

최근 계속된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일용직 일자리가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일용직 취업자 수가 53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월간 기준으로 40년 만에 처음 90만명을 밑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 취업자는 8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한달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돈을 받고 일

하는 취업자다.

일용직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일용직 취업자 수가 90만명을 밑돈 것은 1984년 2월(86만9000명) 이후 40년 만이다.

작년 한 해 동안 7월(98만4000명)을 제외하고 매달 100만명대를 유지한 일용직 취업자 수는 올해 1월(92만3000명)에 이어 두 달째 10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기록적인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까지 겹치면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일용직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정부측의 분석이다.

실제로 일용직 일자리 한파는 지난해 본격화했다. 지난해 월평균 일용직 취업자 수는 104만2000명으로 1970년(101만8000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최근 인력사무소를 통한 단기 아르바이트 등 사업지원서비스 분야 취업자가 줄어든 점도 일용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조달청, 중소기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조달시장 진입·제도 활용 등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중열)은 14일 광주정부청사에서 ‘공공조달 길잡이 상담실’ 현판식을 갖고 지역 신생, 중소기업 대상 공공조달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발굴해 조달시장 진입과 조달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담관이다.

광주조달청은 컨설팅 전담관 2명을 지정, 배치하고 방문·전화·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1대1 컨설팅을 진행한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오는 18일부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